

비교과활동 프로그램 참여가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핵심역량에 미치는 효과
- 생명존중교육 강사양성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은진, 백형의, 손덕순, 강순화
수원대학교, 을지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강남대학교

비교과 활동 프로그램 참여가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핵심역량에 미치는 효과 - 생명존중교육 강사양성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은진**

수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백형의***

울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손덕순****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강순화****

강남대학교 평생교육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제분류 사회복지, 사회복지교육

주제어 대학생 핵심역량, 사회복지, 비교과활동 프로그램, 생명존중교육

요약문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전공 학생들이 정규교과과정 이외에 비교과 활동으로 생명존중 교육 강사양성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대학생 핵심역량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전문대학 사회복지전공 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 실험설계를 사용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명존중 교육 강사양성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의 핵심역량이 프로그램 실시전 보다 실시 후에 모두 증가하여 대학생 핵심역량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 둘째, 비교과 활동 운영에서 이론교육만 참여한 것보다 이론교육과 현장강의 실습을 같이 한 경우에 핵심역량 전체 평균과 하위영역 모두에서 평균 점수가 더 높았다.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 전공 학생을 위한 다양한 비교과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 및 방식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 이 논문은 2020년도 경기도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사업(고등학생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보고서에서 참여대학생의 설문조사 자료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였음.

** 주저자

*** 교신저자

**** 공동저자

I. 서론

최근 대학교육은 대학 조직체계 혁신과 교육서비스 품질혁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 요구에 대응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특히, 교육품질 측면에서 산업체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추고 환경에 적절히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 양성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핵심역량’은 특정 영역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의미하기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를 포괄하는 개념(진미석 외, 2011)이다. 대학생의 핵심역량은 대학교육을 통해 누구나 길러야 할 기본적인 것으로 학생들이 졸업 후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을 말한다(김현우 외 2018). 핵심역량은 OECD가 핵심역량 정의 및 선정 프로젝트(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es)를 통해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창의성(Creativity), 의사소통(Communication), 협력능력(Collaboration) 등을 미래인재 핵심역량으로 선정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대학생 핵심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K-CESA(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를 개발하고 대학생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대학생의 핵심역량을 평가하는 도구 개발과 적용을 넘어서 개별 대학 차원에서 대학생들의 핵심역량을 정의하고, 정규교육과정과 비교과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학교육에서 전공교육과정은 각 전공 분야별로 산업체 요구와 수요자인 학생들의 욕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정규교과 영역에서 습득하지 못하는 부분은 비교과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현장 이해, 실무지식과 기술 역량 증진, 진로 탐색 및 진로설계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습득된다. 각 대학들은 사회와 기업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비교과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구성해 오고 있다(이미나·유지원, 2016). 더불어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비교과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이 평가지표로 포함되면서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을 위한 교과 이수형 자격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교육과정이 이루어진다. 사회복지학문의 특성상 사회복지 활동 분야도 다양하고, 대상자의 특성도 매우 상이하여 학생들의 경험적 학습활동이 매우 중요한 학과이다. 이에 실천학문으로서 사회복지학의 정규과목에서 다루지 못하는 현장에 대한 탐색과 사회복지사의 직무에 대한 실천역량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교과 활동이 매우 필요하다.

김명희·장운호(2021)는 대표적인 비교과프로그램을 튜터링, 멘토링, 스터디그룹, 학습동아리, 학습공동체 등 다양한 명칭 및 방식의 비교과 협력학습지원 등으로 제시하였고, 윤유라·이은주(2021)는 비교과프로그램의 내용을 교수 및 동료 학우들과의 교류, 세미나, 인턴십 등과 같은 교육활동, 동아리 또는 학생회 활동, 자원봉사활동, 해외연수 등으로 제시하였다. 비교과프로그램

은 정규교과에서 습득하기 어려운 다양한 학습경험 기회 제공, 학업성취, 자기계발, 진로선택, 직무 기술습득, 인지·사회·정서적 발달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Marsh, 1992; 이보경 외, 2012; 최자윤, 2018). 비교과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대학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학생들의 인지적, 사회적 및 대인관계 발달과 더불어 학생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오미자·박수미, 2020: 85-86)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대학 생활 만족도(김정리·권준성, 2021), 학업성취와 학업역량(김지혜, 2013; 황순희, 2018),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박성희, 2015), 대학 생활 적응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능력, 진로 관계 역량,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 대학 몰입(황순희, 2018)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비교과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학생의 핵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며, 대학생의 개인별 특성(성별, 학년, 전공, 학업성취수준 등)에 따른 핵심역량의 수준과 그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박철홍 외, 2023). 또한 학생의 전공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전략이 필요(김명희·장운호, 2021)하고, 특정 전공 대학생의 핵심역량의 차이와 부족한 역량의 개인차를 줄이기 위한 전공별 비교과 활동의 적극 활용과 교육적 효과검증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황순희, 2018; 강정찬·정주영, 2022). 지금까지 사회복지 교육분야에서 역량기반 사회복지 교육에 대한 관심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복지영역에서 역량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지역복지, 정신건강 등 실천현장과 조직에서 사회복지사 역량에 대한 연구(장수미 외, 2015; 박병선, 2017; 문영주 외, 2018)들이 일부 있을 뿐이다. 최근 대학의 정규교육과정에서 역량기반 사회복지교육의 필요성과 역량기반 교육을 위한 사회복지 역량모델 개발 등 표준화된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연구(김성경 외, 2018)가 있다. 또한 은선경(2020)은 교육기관에서 사회복지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고 있는가? 의문을 제기하면서 역량기반 사회복지교육을 위해 어떻게 교육하고 훈련할 것인지 그 성과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역량기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교육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의 역량에 대한 합의된 논의도 부족하고, 대학생들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비교과프로그램 효과성 연구는 전무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교과과정 이외에 비교과 활동으로 생명존중 교육 강사양성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강사양성프로그램 활동 후 고등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경험을 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활동이 대학생 핵심역량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비교과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대학생의 핵심역량

학교 교육에 핵심역량이 도입 및 확산되는 계기가 된 가장 대표적인 것은 1997년부터 OECD에서 추진한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로써, 이는 개인의 성공적 삶과 사회발전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이다(OECD, 2003). 선진국에서는 대학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할 기초능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의하고 기초능력을 어떻게 측정하고, 기초능력을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내에서도 핵심역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개발한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 시스템(K-CESA: 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은 인지적 요소와 비인지적 요소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다.

먼저 인지적 요소는 자원·정보·기술활용역량, 의사소통역량, 글로벌역량 그리고 종합적 사고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인지적 요소는 대인관계역량과 자기관리역량으로 나누어진다. 최근에는 핵심역량 중에서도 비인지적 역량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으며, Heckman 외(2006)도 학업 성취도나 IQ같은 인지적 역량보다는 인성과 같은 비인지적 역량이 성공적인 교육적 요소가 된다고 보았다. 김연희 외(2010)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은 창의성을 가장 필요로 하는 역량으로 인식하였으며 전문지식, 직무와 직업 소양, 자기 주도성, 그리고 문제해결 및 사고력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황경수 외(2015)는 대학생들은 인지적 역량보다 비인지적 역량에 대하여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요구가 높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핵심역량은 개인이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이며, 지식과 관련된 인지적인 능력, 사회적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적 능력, 동기유발에 대한 태도 외 대학생들이 학습의 과정에서 획득한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Leutner and Klieme, 2008). 그리고 이러한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비교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기에 대학생들의 핵심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비교과 과정이 필요하다(황순희, 2018; 김미성 외, 2019). 즉,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학과별 특성에 맞고 학생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비교과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정윤숙 외, 2019).

2. 비교과활동 프로그램

대학생의 비교과프로그램은 정규적인 교과과정만으로는 부족한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비교과프로그램의 개념은 대학생의 학

습성과 향상에 효과가 나타나는 교수학습 활동을 미국대학협의회(2008)에서 제시하면서 시작되었으며(Bartkus 외, 2012), 한국에서는 대학생의 다양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Bartkus 외(2012)는 비교과프로그램에 대하여 정규적인 수업 이외에 학점이 부여되지 않으며 자발적 참여로 수행되는 학문적, 비학문적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비교과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역량함양 및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자발적, 선택적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각 대학은 우리 사회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비교과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비교과프로그램의 유형은 연구자에 따라 다른데, 박창남과 정원희(2017)는 핵심역량과 연계하여 비교과프로그램을 자기 이해, 역량 강화, 체험영역으로 제시하였다. 이선영과 나운주(2018)는 대학적응, 학업 증진, 취업 지원으로, 민장배와 송진영(2020)은 의사소통, 대인관계, 학업 증진, 학교·문화적응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즉, 각 대학에서 추구하는 인재상과 목표에 따라 비교과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김혜진, 2016).

그동안 이루어진 비교과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비교과프로그램에 대한 대학생의 특성과 인식에 관한 연구이다(김수연·이명관, 2016; 김은영, 2019; 임유진 외, 2019). 특히 한안나(2017)는 학점이 높거나 자아 정체감이 높은 집단의 비교과프로그램 참여가 다른 대학생들보다 활발하다고 하였으며 배상훈과 한송이(2017)는 고학년, 고소득층일수록 비교과프로그램에 협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하였다. 둘째, 비교과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것으로, 다수의 연구가 존재한다(나현미, 2019; 이희원·박소현, 2017; 정윤숙 외, 2019; 최현철·김수동, 2019). 셋째, 비교과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이다. 비교과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역량 함양과 학업 효과, 대학 생활 만족도 향상 등 여러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비교과프로그램은 정규교과과정에서는 얻을 수 없는 다양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김유진(2021)은 학생의 역량을 발견하고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정규교과과정보다 비교과프로그램이 효과가 높다고 하였다. 또한 김정민 외(2017)는, 교과와 비교과 교육의 참여는 서로 긍정적 관계를 가지므로 가능한 대학생들이 비교과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학습력 강화와 의사소통 향상(김지혜, 2013), 문제해결 능력과 자기주도 학습력(박성희, 2015), 대학교육 만족도(김수연·이명관, 2016)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선정 및 연구과정

본 연구의 참여자는 <2020년 경기도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사업>¹⁾의 일환으로 생명존중 교

육 봉사단으로 참여한 수도권 소재 S전문 대학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학생 32명²⁾을 대상으로 한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S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통해 2020년 4월 한 달간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둘째, 2020년 6월 4일에 교육에 참석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 내용 및 기입 요령을 설명하고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2020년 6월 4일에 1차 강사양성프로그램 이론교육으로 청소년 자살 현황, 청소년 자살 예방 프로그램 등을 교육하였다. 넷째, 2020년 9월 22일에 생명존중 교육 교안을 가지고 전문가 강의시연 및 참여자 강의시연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2차 강사양성프로그램 이론 교육을 실시하였다. 넷째, 교육을 신청한 56개 고등학교의 고등학생 35,491명을 대상으로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하였다. 해당 교육일정에 참여 가능한 대학생들이 강의자 또는 강의보조자 역할로 참여하여 현장강의 실습을 진행하였다. 다섯째, 12월 10일에 봉사단 수료식을 진행하였다. 여섯째, 생명존중 교육 강사양성프로그램 적용이 종료된 다음 날 사전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정보

구분		빈도	%
성별	남	6	20.0
	여	24	80.0
학년	1학년	9	30.0
	2학년	19	63.4
	3학년	1	3.3
	4학년	1	3.3

2. 청소년 생명존중교육 프로그램 개발

생명존중 교육이란 자신과 타인의 생명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이를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가르치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한다(송미경, 2012). 이에 자살예방 전공 교수와 관련 전문가 2명이 비교과 활동으로 청소년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였으며, 회기별 주제 및 프로그램 내용은 <표 2>와 같다.

- 1) 대학생의 사회봉사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주체적으로 참여·공헌하는 청년리더를 양성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경기도가 주관한 [2020 경기도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사업]에 선정되어 시행함.
- 2) 이론교육에 참여하여 자료수집된 학생 수는 30명이었음.

〈표2〉 청소년 생명존중교육 프로그램 개요

회기별 주제	프로그램 내용
슬기로운 학교생활을 위한 스트레스 OUT	-도입: 요즘의 나는?, 스트레스에 대한 착각들 -스트레스 넌 누구냐?: 스트레스의 개념, 청소년기 스트레스 원인, 스트레스 결과, 욕의 반격 -스트레스를 다루는 4가지 비법: 스트레스 해결의 원칙, 스트레스 대처법 -스트레스가 나를 압도할 때, 응급조치: 언제 도움을 청해야 할까?, 스트레스 응급조치 119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청소년 생명존중교육	-도입: 생명의 소중함과 삶의 가치, 자살에 대한 생각 -자살 현황,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 -청소년기 자살의 원인, 청소년기 자살의 특징 -자살에 이르는 단계, 자살의 파급력, 자살을 예방해야 하는 이유 -자살 경고신호 알아차리기, 우울증의 이해 -자살위험에 처한 친구 도와주기, 도움 요청하기

다음으로 비교과 활동으로 진행된 [대학생 생명존중교육 강사양성프로그램]의 구성은 〈표3〉과 같다. 첫째, 1차 자살, 자살 예방, 생명존중 교육에 대한 이론교육이다. 청소년 자살 현황, 청소년 자살 예방의 중요성, 생명존중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대학생 핵심역량 중 지식 차원의 역량 함양을 목표로 구성된 것으로 지식습득을 통해 자긍심, 리더십, 자기주도학습력,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둘째, 2차 생명존중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이론교육과 강의시연 연습 교육이다. 2020년 9월 22일에 전문가 강의시연 및 참여자 강의시연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2차 이론교육을 실시하였다. 생명존중 교육프로그램 교안을 토대로 운영에 대한 실제적인 기술과 기법 등을 시연을 통해 습득하는 과정이다. 2차 과정은 대학생 핵심역량의 기술적 차원의 문제발견능력, 변화대처능력, 종합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과정이다.

셋째, 3차는 실제 경기도 중·고등학교에 방문하여 생명존중 교육을 실행하였다. 현장강의 실습은 경기도 내 56개 고등학교의 고등학생 35,4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각 학교별 교육일정에 참여 가능한 대학생들이 현장강의자 또는 현장강의 보조자로 참여하여 현장강의 실습을 진행하였다. 3차 현장 실습은 대학생 핵심역량의 태도차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추진력과 도전정신, 프로정신, 경험 개방성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이다.

〈표3〉 대학생 생명존중교육 강사양성프로그램 개요

회기별 주제(일시)	프로그램 내용	대학생 핵심역량 차원
1차 이론교육 (2020년 6월 4일)	자살, 청소년 자살의 이해 청소년 생명존중 교육에 대한 이해 대학생 생명존중 교육 강사 참여의 의의와 역할	지식
2차 이론교육, 강의시연 (2020년 9월 22일)	생명존중 교육프로그램 교육내용 이해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전문가 시범 강의 분반활동(대학생 강의시연에 대한 전문가 코칭)	기술
현장강의 실습 (2020년 6월 - 12월)	전문가 생명존중 교육 현장강의 보조 대학생 생명존중 교육 현장강의 실습	태도

3. 대학생핵심역량 조사도구

대학생 핵심역량 척도는 박성미(2011)의 도구를 활용하였다. 전체 8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으로 지식, 기술, 태도로 구분된다. 지식 차원은 자긍심, 리더십, 자기 주도 학습능력,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차원은 문제발견능력, 정보기술의 활용능력, 변화대처 능력, 종합적 사고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24문항이다. 태도차원은 추진력과 도전정신, 글로벌감각, 프로정신, 경험 개방성 등을 측정하는 전체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성미(2011) 연구에서는 대학생 핵심역량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는 .85, 지식차원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는 .85, 기술차원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는 .84, 태도차원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는 .80 이었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 핵심역량수준 척도는 지식, 기술, 태도 3가지 하위역량 총 8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 는 .97로 나타났다. 하위역량별로 살펴보면, 지식차원은 자긍심(7), 리더십(8), 자기주도학습력(7), 대인관계 능력(6), 의사소통능력(6)으로 총 34문항으로 Cronbach's α 는 .95로 나타났다. 기술차원은 문제발견능력(9), 정보기술의 활용능력(5), 변화대처능력(5), 종합적 사고력(5)로 총 24문항으로 Cronbach's α 는 .93이었으며, 태도차원은 추진력과 도전정신(8), 글로벌감각(6), 프로정신(5), 경험 개방성(6)으로 총 25문항이며 Cronbach's α 는 .90으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자료의 수집은 생명존중 교육 강사양성프로그램 사전, 사후조사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방법(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method)을 통해 이루어졌다. 사전조사는 강사양성프로그램의 이론교육 전인 2020년 6월 4일에 실시하였고, 사후조사는 고등학교 현장강의 실습 등의 모든 강사양성프로그램 활동이 종료된 12월 10일에 진행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를 중심으로, ‘이

론교육’에만 참여한 학생보다 ‘이론교육 및 현장강의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대학생 핵심역량 강화 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에 ‘이론교육과 현장강의 실습’을 수행한 학생을 실험집단에 무선배치하였고, ‘이론교육’만 참여한 학생을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내적타당도를 저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도 탈락자와 설문 응답이 누락 되거나 불성실한 경우를 제외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된 참여자는 실험집단 10명과 통제집단 10명으로 총 20명이었고, 학생들의 정보는 다음 <표4>와 같다.

<표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학생들의 특성

구분		실험집단(n=10)		통제집단(n=10)	
		빈도	%	빈도	%
성별	남	3	30	1	10
	여	7	70	9	90
학년	1학년	1	10	3	30
	2학년	9	90	7	70

5. 자료분석

본 연구는 생명존중 교육 강사양성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SPSS Ver.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데이터의 정규성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정규성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는 실험설계의 경우 정규성이 가정될 때, 모수 통계기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의 사전 사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정규성이 확보되었으므로 대응표본 t분석으로 실시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분석을 실시하였고, 두 집단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사후검사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전체 참여자들의 대학생 핵심역량에 미치는 효과

생명존중 교육 강사양성프로그램이 참여자의 대학생 핵심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종속변수들의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5>와 같다.

〈표5〉 대학생 핵심역량의 정규성 검정 결과

구분		Kolmogorov-Smirnov		Shapiro-Wilk	
		통계량	유의확률	통계량	유의확률
대학생 핵심역량		0.128	.20	0.962	.56
하위요인	지식	0.173	.19	0.936	.18
	기술	0.103	.20	0.966	.65
	태도	0.135	.20	0.965	.61

정규성 검정결과 Kolmogorov-Smirnov와 Shapiro-Wilk에서 대학생 핵심역량과 하위요인 지식, 기술, 태도에서 모두 유의확률이 .05 이상이므로 정규성을 만족하였다. 따라서 참여자들의 대학생 핵심역량의 사전 사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대응표본 t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6〉과 같다.

〈표6〉 참여자들의 대학생 핵심역량 사전사후 차이

구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t	p
		M	SD	M	SD		
대학생 핵심역량		3.52	.10	4.15	.57	-4.910	.000
하위요인	지식	3.28	.11	4.21	.56	-7.366	.000
	기술	3.20	.16	4.10	.59	-6.819	.000
	태도	3.27	.13	4.17	.58	-6.689	.000

〈표6〉에서 대학생 핵심역량의 경우 참여자들의 사전검사의 평균점수가 3.52점이고 사후검사 평균은 4.15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4.910$, $p=.000$). 하위요인인 지식의 경우 사전평균이 3.28점이고 사후평균은 4.21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7.366$, $p=.000$). 기술은 사전평균이 3.20점이고 사후평균은 4.10점으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6.819$, $p=.000$). 마지막으로 태도도 사전평균이 3.27점이고 사후평균은 4.1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6.689$, $p=.000$). 따라서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대학생 핵심역량과 하위요인인 지식, 기술, 태도에서 모두 사후평균이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생명존중 교육 강사양성프로그램이 대학생 핵심역량과 하위요인 지식, 기술, 태도에서 모두 역량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2. 강사양성프로그램 구성이 대학생 핵심역량에 미치는 효과

생명존중 교육 강사양성 교육프로그램은 이론교육과 현장강의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이론교육과 현장강의 실습 모두 참여한 학생들을 실험집단으로, 이론교육만 참여한 학생들을 통제집단으로 배치하여, 프로그램의 구성에 따른 대학생 핵심역량의 효과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종속변수의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7〉과 같다.

〈표7〉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대학생 핵심역량의 정규성 검정 결과

구분		Kolmogorov-Smirnov		Shapiro-Wilk	
		통계량	유의확률	통계량	유의확률
대학생 핵심역량	실험집단	.181	.200	.934	.491
	통제집단	.143	.200	.966	.848
하위요인	지식	실험집단	.175	.200	.881
		통제집단	.184	.200	.902
	기술	실험집단	.134	.200	.965
		통제집단	.191	.200	.950
	태도	실험집단	.165	.200	.927
		통제집단	.189	.200	.952

정규성 검정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Kolmogorov-Smirnov와 Shapiro-Wilk에서 대학생 핵심역량과 하위요인 지식, 기술, 태도에서 모두 유의확률이 .05이상이므로 정규성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전동질성을 분석하고자 대학생 핵심역량과 하위요인들을 중심으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는 〈표8〉과 같다.

〈표8〉 두 집단 간의 사전검사 비교결과

구분		실험집단(n=10)		통제집단(n=10)		t	p
		M	SD	M	SD		
대학생 핵심역량		3.53	.10	3.51	.11	.433	.670
하위 요인	지식	3.29	.12	3.27	.10	.462	.650
	기술	3.22	.20	3.19	.12	.350	.730
	태도	3.27	.13	3.26	.14	.301	.767

〈표8〉에서 대학생 핵심역량의 경우는 실험집단의 평균이 3.53점이고, 통제집단은 3.51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t=.433$, $p=.670$). 다음으로 하위요인인 지식($t=.462$, $p=.650$), 기술($t=.350$, $p=.730$), 태도($t=.301$, $p=.767$)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대학생 핵심역량과 하위요인들의 사전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두 집단이 동질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구성이 대학생 핵심역량에 미치는 검증하기 위해, 대학생 핵심역량 및 하위요인의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사후검사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고, 대학생 핵심역량과 하위요인의 사전검사, 사후검사, 조정된 사후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표준오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9〉와 같다.

〈표9〉 대학생 핵심역량과 하위요인에 대한 사전검사, 사후검사, 조정된 사후검사 기술통계

종속변수		집단	n	사전검사		사후검사		조정된 사후검사	
				M	SD	M	SD	M	SE
대학생 핵심역량		실험집단	10	3.53	.10	4.58	.50	4.58	.12
		통제집단	10	3.51	.11	3.72	.16	3.72	.12
하위 요인	지식	실험집단	10	3.29	.12	4.67	.42	4.67	.10
		통제집단	10	3.27	.10	3.75	.12	3.75	.10
	기술	실험집단	10	3.22	.20	4.52	.52	4.52	.14
		통제집단	10	3.19	.12	3.68	.28	3.68	.14
	태도	실험집단	10	3.27	.13	4.65	.40	4.65	.10
		통제집단	10	3.26	.14	3.70	.22	3.69	.10

〈표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생명존중 교육 강사양성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사후검사에서 평균이 증가하였고,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증가량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대학생 핵심역량과 하위요인의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10〉 집단간 대학생 핵심역량과 하위요인에 대한 공분산분석

하위요인		Source	SS	df	MS	F	p
대학생 핵심역량		사전검사	.017	1	.017	.122	.732
		집단	3.693	1	3.693	25.700	.000
		오차	2.443	17	.144		
		전체	350.886	20			
하 위 요 인	지식	사전검사	.011	1	.011	.113	.741
		집단	4.206	1	4.206	42.606	.000
		오차	1.678	17	.099		
		전체	360.201	20			
	기술	사전검사	.068	1	.068	.373	.549
		집단	3.441	1	3.441	18.969	.000
		오차	3.084	17	.181		
		전체	343.471	20			
	태도	사전검사	.150	1	.150	1.478	.241
		집단	4.617	1	4.617	45.358	.000
		오차	1.730	17	.102		
		전체	354.598	20			

〈표10〉의 분석결과, 대학생 핵심역량은 실험집단(M=4.58)이 통제집단(M=3.72)에 비해 평균점수가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25.700, p=.000).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지식의 경우 실험집단(M=4.67)이 통제집단(M=3.75)에 비해 평균점수가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42.606, p=.000). 기술의 경우 실험집단(M=4.52)이 통제집단(M=3.68)에 비해 평균점수가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18.969, p=.000). 태도의 경우

실험집단(M=4.65)이 통제집단(M=3.69)에 비해 평균점수가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45.358$, $p=.000$). 이러한 결과는 생명존중 교육 강사양성프로그램에서 이론교육만 참여한 학생보다 이론교육과 함께 직접 현장에 나가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강의 실습을 한 학생들의 핵심역량의 변화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명존중교육 강사양성프로그램 활동이 대학생의 핵심역량 변화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생명존중교육 강사양성교육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핵심역량 모든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또한 이론교육과 현장강의 실습 모두 참여한 학생들을 실험집단으로, 이론교육만 참여한 학생들을 통제집단으로 배치하여, 프로그램의 구성에 따른 대학생 핵심역량의 효과성의 차이를 검증하였는데 이론교육과 현장강의 실습에 모두 참여한 집단의 대학생 핵심역량 평균이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를 토대로 연구의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핵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이 요구된다. 전공 관련한 비교과프로그램으로 튜터링, 멘토링, 학습공동체, 동아리, 진로탐색과 취업지원, 창업 등의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학업성취, 자기개발, 진로선택, 직무기술 습득 등의 대학생 핵심역량의 제고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사는 실천학문으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실제적인 원조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실무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복지기관의 안전 취약성 때문에 봉사활동이나 실제적 경험을 하지 못하는 현장의 제약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정규교육 과정 운영에서도 동영상 강의로 운영되어왔던 점들은 현장성을 반영한 활동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생명존중 교육 강사양성프로그램은 코로나 시기에 운영되었고 다양한 어려움과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교육과 실제 현장강의 실습을 실행하여 학생들의 지식, 기술, 태도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공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비교과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생명존중 교육 강사양성프로그램과 같은 현장 중심적이고 전공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비교과프로그램의 확대가 요구된다. 학생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프로그램의 확대가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비교과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계열별, 학생특성에 맞게 비교과 활동을 개발, 구성,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 한안나(201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특히 사회복지학과의 경우 실천학문으로서 지식과 기술을 실제화하는 경험학습과 훈련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정이다. 사회복지전공 학생들에게 유용하고 실제적인 다양한 학습방법에 대한 탐색과 학생들의 욕구에 기반한 비교과 활동프로그램의 계획과 실행을 위한 대학의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비교과 활동을 위한 대학의 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비교과 활동프로그램은 <2020년 경기도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자살문제에 대응하여 경기도내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전문가 참여, 프로그램개발, 실무교육, 실제 교육활동 등 비교과 활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은 필수적이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의 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면서 개방이 제한되어졌고,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 등 다양한 불안요소들이 존재하여 비교과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 많았다. 즉, 단순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대학생들이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비교과활동의 확대가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학교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핵심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비교과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참여자를 중심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무작위 배정을 하다 보니 동질성 확보에 제한점이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내적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정교한 설계를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배정하고 동질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위한 다양한 변인(개인 및 전공동기 등)의 영향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효과성 검증연구의 양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나 향후 사회복지전공 학생에게 특별히 더 요구되는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정찬·정주영, 2022,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이 대학생의 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K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수산해양교육연구』, 34(6): 1016-1031.
- 김경리·권준성, 2021, 「비교과 교육과정 참여에 따른 대학생 역량 및 인식 연구」, 『교양학연구』, 14: 63-93.
- 김명희·장운호, 2021, 「튜터링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핵심역량에 미치는 효과 및 학생 변인별 역량 차이 분석 연구」, 『평생학습사회』, 17(3): 267-290.
- 김미성·송운숙·박윤경, 2019, 「비교과프로그램 참여 대학생의 학습역량이 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 『송실대학교 영재교육연구소』, 9(1): 83-100.
- 김성경·김희수·원영희·최선희·안정선·배진형·김성호, 2018, 「역량기반 교육을 위한 사회복지 역량모델 개발 : 서울시 K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43: 1-27.
- 김수연·이명관, 2016, 「대학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인식 및 수요조사를 통한 운영 방향성 제고」,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9): 585-609.
- 김연희·정재삼·이종경·이유진, 2010, 「대학생이 인식하는 핵심역량과 교육요구도 분석」, 『교육방법연구』, 22(4): 1-20.
- 김유진, 2021, 「대학생이 인식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효과의 성별 요인구조와 잠재평균 차이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영, 2019, 「대학 비교과 교육에 대한 여자대학생의 인식 및 발전방향연구-C 여자대학교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3(4): 9-70.
- 김정민·유영희·이상욱, 2017, 「대학의 비교과 활동에 대한 연구 분석과 시사점」,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7): 773-791.
- 김지혜, 2013, 「대학 교육역량의 개념에 비추어 본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교육지표의 타당성 검토」,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우·강선영, 2018, 「대학생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사례」,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 337-357.
- 김혜진, 2016, 「비교과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효과 분석」,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6(5): 143-152.
- 나현미, 2019, 「대학생의 비교과프로그램 참여 지속의향에 미치는 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영주·권자영·최은정·하경희·황정우, 2018,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핵심역량에 관한 수련 교육 요구분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6(1): 64-93.
- 민장배·송진영, 2020, 「외국인 유학생 대상 상호동료튜터링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S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6(2): 865-885.
- 박병선, 2017, 「변화하는 환경에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핵심역량과 훈련체계에 대한 토론편」,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77-78.
- 박성미, 2011, 「직업능력의 요소로서 핵심역량 분석」, 『직업교육연구』, 30(3): 327-351.
- 박성희, 2015, 「대학생 융복합능력 함양을 위한 학습공동체 효과성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3(9): 29-37.

- 박창남·정원희, 2017, 「비교과프로그램이 대학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 『교양교육연구』, 11(1): 39-71.
- 박철홍·이호성·박상일, 2023, 「대학생의 개인별 특성에 따른 핵심역량의 차이 분석」, 『코칭능력개발지』, 25(1): 71-78.
- 배상훈·한송이, 2105, 「대학생의 수업 외 활동이 능동적 협동적 학습 및 대학 몰입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53(2): 323-356.
- 송미경, 2012, 「생명존중교육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죽음 불안, 자살 위험성 및 생명존중의식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미자·박수미, 2020, 「대학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인증 지표 설계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8): 81-102.
- 윤유라·이은주, 2021, 「대학생의 핵심역량 양성을 위한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으로서 독서토론활동의 가능성: D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방법논총』, 6(1): 65-91.
- 은선경, 2020, 「역량기반 사회복지교육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8): 359-369.
- 이미나·유지원, 2016,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한 대학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활용사례」,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2(4): 805-834.
- 이보경·김은정·유광수·이원경·장수철, 2012, 「쌍방향(In/Out Bound) 국제화를 지향한 대학의 교육 실태와 비교과과정에 관한 연구」, 『교양교육연구』, 6(4): 463-492.
- 이선영·나운주, 2018,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적응 실태조사 - 교양교과목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교양교육연구』, 12(6): 167-193.
- 이희원·박소현, 2017, 「서울대 학부생의 학업 역량 분석 및 역량 향상 프로그램 개발 탐색」,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 2(1): 87-105.
- 임유진·김보경·김세영·임현진, 2019, 「창의·융합역량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A 대학 재학생 인식분석」, 『교양교육연구』, 13(2): 287-312.
- 장수미·김미옥·전종철, 2015, 「지역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핵심역량은 무엇인가?」,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4: 1-35.
- 정운숙·윤희정·공성수, 2019, 「대학생 핵심역량 기반 맞춤형 비교과 프로그램개발」, 『교양교육연구』, 13(5): 293-321.
- 진미석·손유미·주휘정, 2011,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체제 구축방안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9(4): 461-486.
- 최자운, 2018, 「대학생의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비교과프로그램 참여자 특성 및 인식 분석」,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현철·김수동, 2019, 「역량기반 비교과프로그램의 질 관리 연구- 한국의 D대학교를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 9(4): 107-120.
- 한안나, 2017, 「대학 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과 성과: D 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30(4): 111-138.
- 황경수·권순철·고봉조, 2015, 「대학생들의 핵심역량 인식 분석: J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교육연구』, 9(3): 131-162.
- 황순희, 2018, 「공과대학생의 핵심역량 분석과 비교과 활동의 활용」,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21(6): 63-73.
- Bartkus, K. R., Nemelka, B., Nemelka, M. and Gardner, P., 2012, "Clarifying The Meaning Of

- Extracurricular Activity: A Literature Review Of Definitions” , *American Journal of Business Education*, 5(6): 693-704.
- Heckman, J. J., Stixrud, J. and Urzua, S., 2006, “The effects of cognitive and noncognitive abilities on labor market outcomes and social behavior” , *Journal of labor economics*, 24(3): 41-482.
- Leutner, D. and Klieme, E., 2008, “Assessment of competencies. Zeitschrift für Psychologie” , *Journal of Psychology*, 216(2): 60.
- Marsh, H. W., 1992, “Extracurricular activities: Beneficial extension of the traditional curriculum or subversion of academic goals?” ,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4(4): 553.
- OECD, 2003,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Theore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DeSeCo) - summary of final report*, OECD Press.

The Effect of Participation in a Extra-curricula Activity Program on the Core Competencies of Social Welfare Majors -with a Focus on the Respect for Life Education Instructor Training Program -

Lee, Eunjin
(Suwon University)

Baik, Hyungui
(Eulji University)

Son, Duksoon
(Yong-in Arts & Science University)

Kang, Soonwha
(Kangnam University)

Subject Social Welfare, Social Welfare Education

Key words Core Competencies of University Students, Social Welfare, Extracurricular Activity

Summ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anges in core competencies of social work majors after they participated in a life respect education instructor training program as a extracurricular activity in addition to the regular curriculum. A pretest-posttest experimental design was used with 20 undergraduate social work majors at a community college,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core competencies of university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life-respect education instructor training program increased from before to after the program, indicating that the program was effective in enhancing the core competencies of university students. Second, the mean scores of the core competencies were higher in both the overall mean and sub-scores of the core competencies when theoretical training and on-site lecture practice were combined than when only theoretical training was provided in the comparison activity. Based on these findings, suggestions were made for the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methods of various co-curricular programs for social work students.

접 수 일 : 2023년 7월 1일

심사완료일 : 2023년 8월 14일

게재확정일 : 2023년 8월 14일